

광주와 대구, 3차원(3D) 융합산업 육성 '맞손'

광주 광산업과 대구 IT융복합산업 접목해 3D융합산업 육성에 창의적 동행 선언





영·호남을 대표하는 광주(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와 대구(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 두 도시가 손을 맞잡고 3차원(3D) 융합 산업 육성에 나섰다. 광주의 광산업과 대구의 IT융합산업에 3D 기술을 접목하는 신성장 산업인 '3D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두 도시가 창의적 동행에 나선 것이다.

두 도시는 지난 7월13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3D융합산업의 효과적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인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구 갑)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대구 3D융합산업에 참가할 기업 31개사가 '한국 3D융합산업 포럼'을 결성했다. 대구의 16개사와 광주 15개사가 포럼에 가입했는데, 이들 기업 중에는 SK C&C, 다쏘시스템, 캐프, 메디슨 등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해 정부가 미래 유망 5대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한 '3D융합산업' 육성에 주도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D융합산업은 모바일 및 IT융합기기 등을 중심으로 3D 영상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의미한다. 영화와 방송 등 기존의 단순 3D영상산업에 비해 범위가 훨씬 넓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커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P/H/O/T/O/N/I/C/S/S/P/E/C/I/A/L



광주시의 강점인 광융합산업을 3D기술로 융합해 지역 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봇산업진흥원·지능형자동차 육성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의료기기 로봇 자동차 등의 특화분야에 3D기술을 접목한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3D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손을 잡고 나선 것은 정부의 초광역경제권 발전 구상과 점차 확장하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초광역 연계 사업 발굴 차원에서 광산업과 IT융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연대를 통해 육성·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해 왔으며, 실무협의회와 5차례 세미나를 개최해 '3D융합산업 육성 전략'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두 도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3D융합산업 육성에 정치권까지 힘을 보탬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두 도시는 ▶대구-광주 초광역 내륙벨트특화산업으로 3D융합산업 공동육성 ▶3D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및 R&D에 대한 상호협업의 및 공동대처 ▶3D융합 연계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기술개발, 제품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협력 등에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조원 투입해 세계 1등 3D융합제품 3개 개발이 목표

이날 포럼에서 '대구-광주 3D융합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 김현덕 경북대 교수는 "3D융합산업 내륙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융합기기, 개인휴대기기, 3D엔지니어링 등 3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며, 3D융합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 3D융합제품 연간 총매출 10조원 달성이 최종 목표"면서 "세부적으로는 3D융합 중핵기업 30개사 육성, 3D융합 선도제품 20개, 세계 1등 3D융합 제품 3개 개발 등이 과제"라고 발표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3D융합산업 육성 포럼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3D융합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특구전기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12월 공동 지정·고시가 확실시되는 '광주-대구R&D 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특구 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총괄 관리와 관련기관간 협의 지원 ▶대구시 및 광주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재원(각 10억원 규모) 부담 ▶LH공사에서 '대구·광주 R&D특구'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한 성공적 개발사업 추진 등이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는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서 광주시가 대구시를 측면 지원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관련해 대구는 침복단지를 활용한 의료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광주는 노인의료서비스, 바이오메디칼로 특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러한 협력은 대구의 뇌융합 연구와 광주의 광산업 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 대구 IT융합 및 그린에너지, 광주 LED·재생에너지부품소재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분야에서는 뮤지컬 등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공연문화와, 전통문화축제 및 예술문화가 강점인 광주가 서로 협력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오랫동안 단순 지리적 거리감 이상으로 떨어져 있던 대구와 광주가 연구개발과 산업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향후 어떤 결과를 내놓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